

부리 자르기(디비킹)를 실시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 상 배 역
(주)삼화농원

부리 자르기는 종계장에서 필수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부리 자르기는 카니발리즘, 깃털뽑기, 사료의 허실, 계란을 깨먹는 일, 그밖의 문제들을 예방한다. 하지만 부리 자르기를 부적절하게 시행했을 때는 닭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 부리 자르기의 효과는 닭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그러므로 개체마다 적절한 부리 자르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리 자르기의 방법이 적절하고 닭의 행동과 생활에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의 몇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누가 부리 자르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숙련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실시할 경우 닭의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리자르기의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받은 숙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조심스럽게 닭을 다루어야 한다

부리 자르기 전, 중, 후에 빠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디비커가 좋지 않거나 다루는 사람이 과격하면 병이나 상처를 줄 수 있다. 닭들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취급을 피하기 위하여 닭들을 가두어 둘때에 주의해야 한다.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고 관리자는 닭들을 바구니나 어리장에 적당히 조심스럽게 넣는지를 확인한다. 바구니나 어리장에 너무 많은 닭을 넣어서는 안된다. 부리 자르기를 하기 전에 너무 오랜 시간동안 닭을 잡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2~3분 이내)

3. 부리 자르기 장비를 잘 점검해야 한다

원칙적인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디비커는 전기장비이므로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 낡고 닳은 기계는 교체해야 한다. 부리를 자르고 불로 지지는 과정은 부리의 잔여 물질이 굳

어지므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디비커를 함부로 다루면 전기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

4. 부리 자르기를 하는 사람은 편안한 자세로 실시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 부리 자르기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리 자르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디비커의 위치가 중요하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에 따라서 디비커의 중심을 다르게 해야한다. 이것은 닭을 잡을 때 자연스러운 위치에 손과 팔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칼날의 열을 적절히 해야한다

닭들에게 최소로 고통을 줄이고 부리의 생장점을 죽이기 위해서 온도를 충분히 높게 유지해야 한다. 색깔로 칼날의 온도 정도를 알 수 있다. 부리 자르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선홍색을 띤 정도의 온도이다. 필요 이상의 열을 절대 사용하지 마라. 새로운 칼날은 대개 낡은 날보다 더 밝은 색을 띤다.

6. 적당한 힘으로 닭을 잡아라

닭의 머리는 부리를 자르고 지지는 동안 굳게 해야 한다. 만약 닭의 머리가 칼날과 직각으로 하지 않으면 윗부리나 아랫부리의 길이가 달라서 사료섭취에 지장을 초래하여 마침내 약추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너무 힘을 주거나 결코 부리를 옆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7. 일정한 힘으로 작업하라

병아리의 다물린 부리를 디비커 플레이트에 집어 넣어서 칼날이 내려오는 시간내내 똑같은 힘으로 부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한쪽면으로 닭의 부리가 잘리면 부리가 꼬일 수도 있다. 적당한 마취시간은 지나친 출혈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8.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라

부리 자르기는 닭들에게 항상 스트레스를 준다. 부리 자르기 후 첫 2~3일 동안 음수소비량이 75%나 줄 수도 있다. 부리 자르기 후 즉시 물과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부리 자르기 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급수량을 충분히 하여 머리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하여 물을 섭취하기 쉽게 하도록 하라. ② 가능하면 처음 2~3일 동안은 가루사료나 입자가 작은 크럼블 사료를 급이하라. 또한 사료를 많이 주어 부리끝이 급이기의 아랫부분에 닿아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 추운 계절에는 급이기 및 급수기가 육추기 근처에 설치되도록 조정하여 따뜻하게 해주어라. ④ 육추실의 온도 정도로 물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급수하라. ⑤ 더운 계절에는 그날의 가장 시원한 시간대에 부리 자르기를 실시하라. 만약 부리 자르기 이후 너무 더운 기온이면 심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더운 날씨에는 절대적으로 뜨거운 칼날로 부리의 잘린 부위를 마취시켰는지를 확인하라. ⑥ 닭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병이 의심될 때는 결코 부리 자르기를 하지 마라.(자료제공 : 아바에이카 육종회사) 양계